

“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으로 신앙적 애국심이 강한 모범 크리스천이요 시인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라고 가르친 그가 동족을 위해서는 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했을까?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에 처한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길로 치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근심과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적 차원의 애국심을 가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심과 차원이 다른 애국심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애국심은 가질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다. 예수 외에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이가 민족 구원, 나라 사랑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는 길임을 확신하고 그 일에 목숨을 바치는 일이 애국하는 길임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애국심이란 국가라는 어떤 실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국가는 21세기에 사는 이들에겐 공동이익 집단이다. 혈연, 지연, 이념을 말하나 나라 사랑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천만을 누가 전부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심이다. 따라서 애국 또는 애국심은 사랑에 밀받침이 된 것이다. 동족으로부터 천대, 멸시, 핍박, 오해를 많이 받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 40명이 그를 헐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키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동족의 위협과 위험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 위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든가, 저들을 사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자로 동족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었다. 모세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해 이 같은 기도를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그들로 믿게 하려고 애끊는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고통 받는 복역당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번민해 본 적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가족, 친족, 이웃, 장애인, 타문화권 노동자, 노숙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학대 받는 북한의 동족 위해 고통을 느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저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환자를 사랑하면 그의 병이 내게로 옮겨올 수 있고 죄인을 사랑하면 나도 죄인이라는 같은 운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 그곳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따라갔다. 결국 그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희생 없는 애국, 애족은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anathema) 즉 천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지언정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다. 바울의 애국심은 소망에 근거된 것이다. 사도는 자기를 죽이기까지 괴롭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 구약에서 253회 반복 강조되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는 소망을 바울은 확실히 가졌다. 나라를 빼앗긴 어두운 시절에 윤치오는 하나님이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지었고 남궁억은 3.1운동으로 전국이 피 냄새로 악취를 풍길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비단실로 짜놓은 반도 강산)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했다. 유관순은 일본헌병대에 끌려가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남강 이승훈은 재판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본 이들은 현실의 암울함 속에서도 미래에 주실 자유, 정의,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의 애국자다. 애국심은 위태로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한 사도처럼 하나님 백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한국장로신문 2013년 5월 4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셋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대면예배를 재개합니다.

2022년도 청지기 수련회를 1월 찬양예배 시간에 리더십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 번째로 [상담관점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강사 공진수 목사)] 특강이 진행됩니다.

여러 성도들, 특히 새로이 임직 받아 사역을 시작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건강상 어려움이 없는한 꼭 참석하셔서 중직자로서 상담사역에 필요한 리더십을 귀한 특강을 통해 구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116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화목제를 드립니다 ”

■ 레 7:28-34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 눈에 띄는 장면은 사울왕의 측근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었다(삼하 3:38)며 애도했습니다. 사울의 후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므비보셋을 왕궁에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사울의 추종자들을 화합과 포용으로 품었고, 화목한 정치가 역사상 최고의 번영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57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가 헌신제사의 성격을 지닌 반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에 대한 회개와 죄사함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친하고 사람들과도 화해하는 것을 통해 잔치로 이어지는 축제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위한 대표적 제사로 화목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화목제란 무엇인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입니다. 일부는 불태워 바치고(3:4-15), 일부는 제사장에 식물로 드리고(7:14, 29-34), 일부는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7:15-18).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1)감사할 때, 2)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3)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사였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거나 실수할 때가 많았지만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회복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4,16)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혼의 평화와 삶의 용기, 담대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 화목제사는 사람들과의 화평도 포함합니다.

화목제사 때 드린 제물은 당일엔 다 먹고, 혹시 남으면 그 다음날까지는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날은 가족은 물론 이웃들, 제사장들도 모두 잔치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에덴동산에서 범죄 했던 아담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 가정 안에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는 인간 세상의 불화와 닮으므로 이어지고 진정한 인간 공동체는 붕괴되고 맙니다.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시는 것은 제단에 뿌려진 제물의 피와 불살라 드리는 기름뿐입니다. 나머지 좋은 부분들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이웃과 더불어 즐기는 것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1)기쁨을 먼저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2)언제나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결국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 상처가 됩니다. 3)그리고 언제나 예의를 중시해야 합니다.

3. 화목제사의 완성은 거룩한 삶입니다.

화목제는 자신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레 19:5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라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 당일 그 제물을 다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곧 나눔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활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 필요한 근본정신은 곧 탐욕의 절제입니다. 탐욕의 절제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운운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시 37:11)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 절제를 실천하며 희생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오는 담대함은 세상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룩하신 참 평화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선물해야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화목 제사를 매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노문환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99:5,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1(주현절1)...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04(404)...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레 7:28-3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화목제를 드립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53(506)...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공전수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34:1-2 인 도 자
 찬 송 310(410) 다 합 께
 기 도 장상국 집사
 찬 송 428(488) 다 합 께
 성 경 사 40: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 설 교 자

* 찬 송 477(448)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박종숙 권사 II부: 오가연 권사
 성 경 행 14:1-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우리도 사람입니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영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영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를 중에서 그 혼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속죄이니라(레 7:34)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 경로대학 임원 모임 / 16일(주) 1부 예배 후 609호
- 에스더 전도회 임직원 모임 / 16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 사라 전도회 임직원 모임 / 16일(주) 3부 예배 후 602호
- 에스더 전도회 모임 / 19일(수) 오후 12시30분 802호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결혼

- 이기욱 군(이인득, 김미정 씨의 장남)과 김설아 양(1교구 김영선 집사, 권택숙 권사의 차녀) / 1월22일(토) 오후 6시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02-2276-3310) / 1, 4호선 동대문역 9번 출구

장례

- 故 명인식 집사(4교구 김정열 권사의 부군) / 9일(주일) 별세, 11일(화) 천국환송예배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50명	557명	2,207명	416명	2,007명

개인의 위기

지식 사회일수록 개인의 위기가 팽배해 있다. 개인이 없는 전체나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집단보다 중요시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개인적인 것이 될 것이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손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이다.

이처럼 개인이 중요하지만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천박한 상태에 빠지게 되며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강조케 됨으로 사머니즘과 같은 비기독교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 개인주의가 강조됨으로 공동체 의식도 무너지게 되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도 저해를 받게 된다.

한국교회가 몸 되신 교회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여 개인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